

“학교 교육, 민주주의의 출발점”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확대·정치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구상 발표... “19세 청소년 지방의원 배출이 목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그 출발점은 학교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육이 입시 중심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기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천 예비후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 중심 민주시민교육 확대 △정치교육 활성화 △청소년 정치 진로 지원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해 학교 운영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치교육을 통해 사회 이슈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 의회 활성화와 정책 참여 프로그램, 공공 분야 멘토링 등을 통해 정치 참여를 미래 진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천 예비후보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을 통해 궁극적으로 19세 청소년 지방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다시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3~5세 유아 정서·심리 지역사회와 함께 돌본다

전북교육청-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심리지원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의 핵심 서비스인 ‘유아 정서·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정서·심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심리 안정을 돕는 게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유아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관찰에서부터 필요한 검사와 적정 프로그램 지원 확보와 교사 연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우선 유아 300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상담’ 지원을 한다.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을 연결해 심층적인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150학급을 대상으로 유아들이 또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 상담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급 단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부모·교사 연수도 강화한다. 유아의 정서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도법을 교육함으로써 유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북교육청은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의 손길이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전주시·군산시·남원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7개 센터에서 정읍, 완주, 순창, 임실, 장수 등 센터가 없는 지역을 말도록 해 누수 없는 심리 방역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이 사업을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협력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원주교육지원청, 학교밖 늘봄 13개 기관 선정·운영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밖 늘봄’을 선정,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밖 늘봄’은 학교 안을 넘어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해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과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주교육지원청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총 13개 기관을 ‘학교밖 늘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돌봄형 주중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돌봄 교실 운영, 스포츠 활동(풋살, 탁구 등), 메타버스·코딩·드론 등 디지털 체험, 생명과학 실험 및 메이커 교육, 음악·공예·전통놀이 등 문화예술 활동 등 학생들의 흥미와 성장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10년 연속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우석대, 작년 실적 평가서 상위 10개교에 이름 올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10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학생이 희망 직무에 맞는 협약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이에 대한 급여를 국가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 온 우석대학교는 지난해까지 약 3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학생 1566명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우석대학교는 2025년도 실적 평가에서 상위 10개교에 선정돼 운영비도 확대 지원받았다. 올해도 우석대학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약 100개 기업과 협

력을 맺어 재학생의 희망 직무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국가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직무체력과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전경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기업에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진로·취업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분부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오늘부터 승용차 2부제 시행”

전북교육청,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 따라 도교육청 청사 방문 민원인 승용차는 5부제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사 방문 민원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을,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오상근 기자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기타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출입구 차량 제한, 출입 관리 인력 배치, 차량번호 확인 시스템 운영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직원 대상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 공무원부터 적극적으로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7일 전주공업고등학교 경기장을 방문해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학생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의 장”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전북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 격려 도내 직업계고 학생 200여명, 10일까지 37개 직종서 기술 겨뤘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7일 전주공업고등학교 경기장을 방문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도내 10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올해 기능경기대회에는 39개 직종에 약 300명이 참가한다.

학생 참가자는 전주공고 등 15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자동차량비, 모바일

로봇리스, 산업용로봇 등 37개 직종에 2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길고 닳은 기술을 겨룬다.

2025년 대회에서는 17개 직종계고에서 27개 직종에 19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입상자는 메달과 상금,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등을 받게 되며, 올해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기

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할 자격도 얻는다.

이날 경기장을 방문한 유정기 권한대행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선전을 당부하는 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들과 직업계고 운영 개선 및 학생들 기술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기능경기대회는 오랜 시간 땀 흘려 연습하며 탁월한 실력을 쌓아온 학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현신적으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도내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참여, 실무 중심 채용 정보 공유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스타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대비해 마련됐다.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

광재단 등 도내 5개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가 참여해 릴레이 형식으로 채용 절차와 직무 역량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각 기관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별로 상이한 채용 방식과 준비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여한 김모 학생(회계세



무학과 4학년)은 “막막했던 취업 준비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으며, 졸업생 김모 씨(스마트미디어학과)는 “채용공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 수업혁신 지원단 27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분과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동 연구·개발로 질문 중심 탐구수업 실험

전북교육청, 초등 수업혁신 지원단 분과별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업혁신의 핵심인 개념기반 탐구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초등 수업혁신 지원단 27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분과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상근 기자

수업혁신 지원단은 질문과 탐구로 학생의 사고력을 기르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실험을 위해 모인 교사들로, 관심 분야를 반영해 분과를 이루고 수업 공동 연구 및 적용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분과 14개, 교과별 교유의 탐구 방법을 연구하는 교과분과(국·수·사·과·영·통합교과) 6개, 국정 과

제의 수업혁신 핵심인 시 활용과 수업 평가 연계를 모색하는 주제분과 4개 등 총 24개 분과가 운영된다.

분과별 설명회에서는 수업혁신 지원단의 사업취지 및 기본 과업을 안내하고, 각 분과별 리더교사가 주축이 돼 분과별 운영 특색, 연구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한다.

지역분과는 14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설명회가 열리며, 교과 및 주제 분과는 도교육청 창조미래관 2층 협의회실에서 운영된다.

24개 분과는 향후 월별 대면모임 연구, 수업 자료 개발, 수업공개 및 참관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현장 확산 방안을 도모한다. /오상근 기자